

내유동맥 연쇄문합술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로 이식술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안병희 · 나국주 · 김상형

내유동맥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에 사용되는 이식편 중 가장 장기개존율이 우수하여 장기생존율의 향상시키고 술후 심근경색, 흉통의 재발 등등의 발생빈도를 낮추기 때문에 동맥이식편을 이용하면 술후 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동맥이식편을 많이 활용하려는 추세이나 동맥이식편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종종 연쇄문합이 시행되고 있다. 저자들은 전남대학병원 흉부외과에서 1993년 7월부터 1996년 6월 사이에 좌전하행지와 대각지에 좌내유동맥을 연쇄문합하였던 14례의 술후 조기성적을 분석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환자는 남자가 11명 여자가 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4.64 ± 6.41 세이었고 50대가 7례로 가장 많았다. 위험인자는 흡연이 7례로 가장 많았으며 고혈압, 고지질증이 각각 4례이었고 위험인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도 1례있었다. 임상적 진단은 11례가 불안정성 협심증 이었고 안정성 협심증이 2례, 급성심근경색이 1례 있었다. 과거력상 심근경색이 있었던 경우가 7례있었고, 동반질환으로는 승모판막폐쇄부전이 3례, 좌심실류가 3례 등이 있었다. 술전 실시한 관동맥조영술상 좌주관동맥에 병변이 있는 레가 3례 있었으며 3중 혈관병변이 6례, 2중 혈관병변이 3례 그리고 상부 좌전하행지에 병변이 국한된 단일 혈관 병변이 2례있었다. 총문합 수는 56개로 환자당 평균 문합수는 4.00 ± 1.07 개이었다. 좌내유동맥이외의 이식편으로 대복재정맥이 11례에서 23개의 문합에 이용되었으며 우위대망동맥이 5례의 환자에서 5개의 문합에 이용되었다. 이식부위는 좌전하행지 및 대각지가 각각 14례로 가장 많았고 기타 둔각변연지 12례, 우관동맥 6례 등이었다. 사용한 이식편은 좌내유동맥과 복재정맥을 이용한 경우가 7례로 가장 많았고 좌내유동맥, 우위대망동맥과 복재정맥등 3개의 이식편을 이용한 경우가 4례, 좌내유동맥과 우위대망동맥의 2개의 이식편을 이용한 경우가 1례였으며 좌내유동맥만을 이용한 경우도 2례있었다. 동반 수기로 관동맥내막절제술 3례, 승모판막성형술(Duran ring #29) 1례, 좌심실류성형술 2례가 있었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창상감염 2례, 위출혈에 의한 개복술 1례, 심방세동 1례가 있었다. 수술사망은 없었으며 EF이 20%, LVEDD와 LVSD이 7.5cm과 6.0이면서 거대 좌심실류를 동반한 레가 술후 53일째 폐혈증 및 심부전증으로 만기병원사망하였다. 생존한 13례는 외래추적관찰 중이며 평균 추적관찰기간은 17.23 ± 14.65 개월이다. 추적관찰중 모든 레에서 심초음파, Thallium Scan 등을 시행하였으며 4례(30.8%)에서 술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좌내유동맥 개존을 확인하였다. 추적관찰 중 2례의 환자에서 심부전증에 대한 외래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존의 승모판막폐쇄부전 그리고 좌심실기능저하(EF 18%)가 각각의 환자의 심부전증 원인으로 생각된다.

내유동맥의 연쇄문합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이 술후 합병증의 발생이나 수술사망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적응증이 되는 환자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볼 수 있는 수기로 생각되고 장기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